

- 주요 뉴스: 미국 2/4분기 성장률 -0.9%로 2개 분기 연속 역성장. 기술적 경기침체 진입
 - 유로존 7월 경기체감지수, 17개월래 최저. 경기침체 우려 등이 반영
 - 중국, 경영난 겪는 건설업체들에게 1조위안 규모의 대출 제공할 방침
 - 일본은행 부총재, 완화정책의 출구전략 고려할 필요. 다만 실제 시행까지 시간이 필요
- 국제금융시장: 미국은 저조한 성장률 및 연준의 금리인상 속도 조절 가능성 등이 영향

주가 상승[+1.2%], 달러화 약세[-0.3%], 금리 하락[-11bp]

- 주가: 미국 S&P500지수는 공격적인 금리인상 우려 완화 등으로 매수 증가
유로 Stoxx600지수는 소비 관련 기업의 양호한 실적 등으로 1.1% 상승
- 환율: 달러화지수는 통화긴축이 예상보다 악화될 수 있다는 기대 등이 배경
유로화는 약보합, 엔화가는 1.7% 절상
- 금리: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경기침체 우려 등이 주요 원인
독일은 미국 채권시장과 유사한 이유 등으로 12bp 하락

※ 원/달러 1M NDF환율(1295.6원, -0.5원) 보합, 한국 CDS 하락

		7/28일	7/27일	전일대비			7/28일	7/27일	전일대비
주가	미국	4,072.4	4,023.6	1.21%	국채 금리 10y	미국	2.68%	2.78%	-11bp
	유럽	432.77	428.12	1.09%		독일	0.83%	0.95%	-12bp
	중국	3,282.6	3,275.8	0.21%	CDS 5y	한국	42bp	45bp	-3bp
	일본	27,815	27,716	0.36%		중국	77bp	82bp	-5bp
	한국	2,435.3	2,415.5	0.82%	위험 지표	EMBI+	-	464	-
환율	달러지수	106.19	106.45	-0.25%		VIX	22.33	23.24	-3.92%
	유로화	1.0197	1.0200	-0.03%		WTI유	96.42	97.26	-0.86%
	엔화	134.27	136.57	1.71%	원자재	구리	347.5	343.0	1.31%
	위안화	6.7473	6.7590	0.17%		금	1,755.8	1,734.2	1.25%
	원화	1,296.1	1,313.3	1.33%					

주: 주가는 미국 S&P 500, 유럽 Stoxx 600, 중국 상해종합, 일본 닛케이225, 한국 KOSPI.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.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(+/-는 절상, 절하). 자료: 블룸버그

금일의 포커스

■ 미국 2/4분기 성장률, -0.9%로 2개 분기 연속 역성장. 기술적 경기침체 진입

- 상무부에 따르면, 금년 1/4~2/4분기에 연속 역성장(전기비연율 각각 -1.6%, -0.9%)을 기록하여 기술적 경기침체 국면에 진입. 다만 공식 경기침체 진입 여부는 NBER(전미경제연구소)에서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
- 부문별로는 소비지출(1.24%p→-0.70%p), 주택투자(0.02%p→-0.71%p), 재고(-0.35%p→-2.01%p)등의 기여도 감소하면서 역성장을 초래. 무역부문(-3.23%p→-1.43%p)은 무역수지 개선 등의 영향으로 증가
- 이번 결과는 인플레이션 압력 증가, 연준의 공격적인 금리인상 등으로 실질구매력이 약화되고 있음을 제시. 또한 정책금리 상승에 따른 모기지금리 급등이 금리와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주택경기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했음을 확인
- 바이든 대통령과 옐런 재무장관은 경기침체에 진입하지 않았다는 의견 피력. 특히 옐런 장관은 대규모 해고 및 실직, 기업의 파산, 민간부문 경제 활동의 심각한 둔화 등 통상적인 경기침체 현상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설명
- JPMorgan의 Michael Feroli는 기업투자 및 소비지출 둔화가 경제 성장 동력이 약화되고 있음을 나타낸다고 평가. 한편 BMO Capital의 Sal Guatieri는 경기침체 우려가 커지면서 연준이 9월에 큰 폭의 금리인상을 포기할 수 있다고 주장. 반면 FHN Financial은 성장둔화만으로 금리인상 중단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진단

글로벌 동향 및 이슈

■ 미국 7월 4주차 신규실업급여 청구건수, 전주 대비 감소. 공급부족 여건 지속

- 해당 건수는 25.6만건으로 전주(26.1만건) 대비 적은 수준. 4주 만에 처음으로 전주 대비 감소로 전환했으나, 여전히 작년 11월 이후 최고 수준 근접. 블룸버그의 Eliza Winger은 노동시장이 해고된 근로자들을 여전히 흡수하고 있다고 언급

■ 이탈리아 중앙은행 총재, 유럽은 경기침체에 진입할 가능성

- 비스코 총재는 ECB가 유럽의 경기침체 위험에 대해 무엇을 준비할 것인지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. 한편 ECB가 특정국의 채권을 매입하는 파급경로보호장치(TPI)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채권시장에서 패닉의 징후가 발생해야 한다고 발언

■ 유로존 7월 경기체감지수, 17개월래 최저. 경기침체 우려 등이 반영

- 해당 지수는 99를 기록하여 전월치(103.5) 및 예상치(102) 하회. 이는 에너지 공급 부족과 ECB의 금리인상 등으로 경기침체가 도래하고 있다는 불안이 확대된 결과. 19개 국가 가운데 11개 국가에서 경기침체 우려가 증가

■ 독일 7월 소비자물가 상승률, 예상과 달리 전월보다 높은 수준. 에너지 가격 급등 등이 원인

- 해당 상승률(전년동월비)은 8.5%로 예상치(8.1%) 및 전월치(8.2%) 상회. 에너지 및 식품가격 급등 등이 이번 결과를 촉진. ING의 Carsten Brzeski는 소비자물가 상승세가 다시 강화된 것은 ECB에게 추가 금리인상 압력으로 작용한다고 평가

■ 중국, 경영난 겪는 건설업체들에게 1조위안 규모의 대출 제공할 방침

- 당국은 경제성장 기여도가 높은 건설부문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해당 조치를 시행할 전망. 먼저 인민은행은 상업은행들에 1.75%의 저금리로 2000억위안을 공급하여 건설업체 지원을 위한 자금으로 활용할 계획

■ 일본은행 부총재, 완화정책의 출구전략 고려할 필요. 다만 실제 시행까지 시간이 요구

- 아마미야 부총재는 최근의 인플레이션이 연료가격 상승 등에 의한 것임을 고려한다면, 완화정책의 출구전략 시행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관측. 다만 충분한 수준의 임금상승이 필요하기에 당분간은 완화 기조 유지가 중요하다고 첨언

■ 호주 정부, '22~'23 회계연도 성장률 전망을 하향. 인플레이션 위험을 경고

- '22, '23 회계연도의 성장률 전망을 모두 0.5%p 낮춰서 제시하고, 물가상승률은 각각 7.35%, 4.25%로 예상. 짐 찰머스 재무장관은 인플레이션 압력이 완화될 수는 있으나 단기간 내에 이러한 결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발언

주요 경제지표

■ 주요 경제지표 발표 내용(7/28 현지시각 기준)

- 유로존 7월 소비자신뢰: -27, 6월(-23.8), 예상치(-27)

■ 주요 경제 이벤트(7/29 현지시각 기준)

- 미국 6월 개인소득, 개인소비, PCE 물가, 7월 미시건대 소비자태도지수,
- 미국 7월 시카고 PMI, 유로존 2/4분기 성장률 및 7월 소비자물가

해외시각 및 외신평가

■ 미국의 경기침체 우려, 물가하락 가능성을 고려 시 다소 과장되었을 소지 - WSJ

(Stop Panicking About the U.S. Economy)

- 최근 물가상승에 따른 소비둔화 가시화 등으로 경제 관련 부정적 전망이 증가. 하지만 향후 물가상승 둔화 신호 등을 반영한다면 경기침체가 발생해도 단기적이며 심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
- 실제로 월마트 등 대형 소매업체들은 전반적인 물가상승 여건에서도 제품의 판매가격 인하에 나서는 상황. 또한 국제유가는 3월 이후 꾸준히 하락하고 있으며, 이러한 추세는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. 이 외에 최근 4개월 간 실업률의 낮은 수준(3.6%) 유지 등도 경기침체 우려를 완화시키는 요인

■ 신흥국의 부채 문제, 스리랑카 외 다수 국가에 걸쳐 위험 수준 - Financial Times

(Trouble is coming for emerging markets beyond Sri Lanka)

- 외환보유액 고갈과 에너지 부족으로 대규모 부채를 지닌 스리랑카의 문제는 최근 신흥국이 직면한 위험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. 스리랑카 외에도 많은 중저소득 국가는 식료품과 에너지 비용의 부담으로 어려움이 가중
- 다수의 신흥국은 중국에서 차입한 부채가 많은데, 중국은 부채탕감 협상에 오랫동안 소극적인 입장을 유지. 한편 파키스탄, 가나, 이집트, 튀니지가 IMF와 구제금융 협상에 나선 가운데 세계 경기침체는 신흥국에 부정적 영향

■ 중국 당국, 소비자 신뢰 회복을 위해 선제적인 부동산 안정화 대책이 요구 - WSJ

(China Needs Decisive Action on Property, Before It's Too Late)

■ 경제 취약국, 연준의 금리인상에 대응한 과도한 긴축을 경계할 필요 - Financial Times

(The Fed's rate increases are a matter of high interest for everyone)

■ 원자재 시장의 변화, 공급과잉으로의 전환 여부를 주목 - 블룸버그

(Are Commodity Markets on the Turn?)

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;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 문의: 02-3705-6172, E-mail jsjeong@kcif.or.kr